문화전당 주변 문화특구 추진

문화수도 효과 도시 전체 확산

문화 관련산업 키울 클러스터 조성
동부서 이전·민자유치 최대 과제

광주시 동구 금남로 1가 1번지 일대가 문화특구(투자진흥지구)로 조성될 경우 아시아문화중심 도시조성사업의 파급효과가 도시 전체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옛 도청 부지에 국한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영역이 금남로 일대까지 확장되면 문화전당과 연계한 문화산업 클러스터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문화산업벤처타워와 특급호텔이 들어섬으로써 문화산업 육성은 물론 관광인프라 확충에도 기여하게 된다.

그러나 1천500억원 규모의 투자진흥지구 조성사업이 전액 민자방식으로 추진돼 투자자 확보가 쉽지 않은데다 공공기관 이전 문제도 난제로 부각되는 등 넘어야 할 산도 적지않다.

◇**기대 효과**=투자진흥 지구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과 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일종의 특구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에 지정 요건이 규정돼 있다.

이 특별법을 근거로 각종 인센티브가 제공됨에 따라 문화 관련 업체들을 흡인, 문화전당과 연계한 문화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동부경찰서와 전일빌딩 부지 등 금남로 1가 1번지 일대가 투자진흥지구로 개발될 경우 입주 업체를 지원하는 공동제작시설·창업보육센터, 마케팅 지원센터 등이 국·시비 지원으로 건립될 수 있기 때문이다.

10층 규모(7천300㎡)로 건립되는 문화산업벤처타워는 문화산업 육성의 기폭제가 될 전망이다. 문화산업벤처타워에는 문화 산업체 등이 대거 입주, 자체 문화콘텐츠 개발은 물론 문화전당에서 창작한 콘텐츠의 소비와 유통, 재생산을 맡게 된다.

특히 아시아 문화전당 방문객들이 머물 수 있는 251객실을 갖춘 10층 규모의 특급호텔이 건립됨으로써 아시아문화전당 운영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가칭 '아시안 호텔'은 다목적 회의장, 음식점, 각종 편의시설을 갖추게 된다.

◇**향후 추진 과제**=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은 조성사업을 전액민자 방식으로 추진키로 하고 올 안으로 투자설명회를 거쳐 투자업체를 선정한 뒤 투자진흥지구 지정에 이어 내년 초부터 개발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그러나 사업 방식상 1천500억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민간기업이 전액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투자 기업을 물색하는 데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또 투자진흥지구내 전일빌딩을 비롯 군소 건물들은 보상절차를 진행하는 데 장애가 없다는 게 추진단의 판단이지만, 동부경찰서 이전이 정부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답보상태에 있는 것이 문제다.

이에 대해 조용수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 동구 대책 위원장은 "동부경찰서 이전 문제가 마무리돼 투자진흥지구 개발사업이 서둘러 진행됐으면 한다"며 "정치권을 비롯한 각계에서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MB 친정 구축 … '컨트롤 타워' 기대

■ 박희태호 출범 의미와 전망

당-청 '통합과 소통' 가교역할 할 것
'관리형 리더십' … '靑 2중대' 우려도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이 전당대회에서 친이(親李·이명박) 주류의 박희태 대표 체제를 출범시킴에 따라 향후 당·청 관계는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갖출 전망이다.

박 대표가 그동안 '통합과 소통'을 화두로 당·청을 잇는 가교 역할을 강조해왔기 때문이다.

박 대표는 지난해 경선과 대선 과정에서 이명박 캠프의 중핵(中核)이었던 '6인 모임' 멤버로 활약했으며, 이 대통령에게 정국 현안에 '조언' 할 수 있는 핵심 인사로 꼽힌다. 우선 당·청관계의 변화는 우선 이 대통령과 박 대표 간 정례회동의 활성화로 나타날 전망이다. 단순 회동의 수준을 뛰어넘어 명실상부한 여권 내 '컨트롤 타워'로 자리 잡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특히 '쇠고기 정국'의 진행 상황에서 국가위기 상황을 수습하고 '경제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한 당·청간의 협조체제는 그 어느 때보다 긴요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당내 갈등의 '진앙지'였던 친박 인사들의 복당 문제도 대거 포용하는 방향으로 정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표가 특유의 친화력으로 이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표를 잇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적지 않다.

여기에 박 대표가 비록 원외대표이지만, 이상득 전 국회 부의장 등 원로그룹의 지원을 받는 데다 홍준표 원내대표, 임태희 정책위의장 등 여권 내 '신(新) 주류'와도 가깝다는 점에서 당 지도부의 리더십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측에서도 박 대표가 당·청간 소통확대를 위한 최선의 카드라고 반기는 분위기다. 박 대표가 당내 확고한 입지를 구축하고 있는 데다 지난해 경선 기간에 이 대통령의 선거캠프에서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은 경력이 있어 당·청 간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기에 최적임자라는 것.

그러나 박 대표가 출마 이전부터 '관리형 대표'로 지목받았다는 점에서 이 대통령의 친정체제 범위가 당에까지 미쳐 청와대의 통제가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게다가 당내 일각에서는 박 대표가 새롭고 급변하는 정치 환경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리더십'을 갖추고 있느냐는 회의론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박 대표의 핵심 관계자는 "박 대표는 산전수전 다 겪은 정치인"이라며 "박 대표가 청와대에 고분고분한 여당이 아니라 할 말은 하는 '꼿꼿한 여당'을 만들겠다고 밝힌 점을 주목해 달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정치권에서는 친이계가 당을 장악한 만큼 한나라당이 청와대에 당분간 끌려가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박 대표가 경륜을 바탕으로 한 조정력을 발휘, 계파정치를 억누르며 집권 여당의 올바른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는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검사장 출신… 위기 강한 '화합형'

■ 박희태는 누구

10년 만에 집권 여당으로 거듭난 한나라당의 새로운 수장으로 선출된 박희태 대표는 위기에 강한 '화합형 지도자'로 평가된다.

당이 어려울 때마다 최전선에서 위기를 기회로, 불안을 희망으로 변화시켰다는 평을 받기 때문이다.

그는 2002년 대선패배 직후 당이 초토화됐을 당시 대표 권한대행과 대표로서 임시 지도부를 지휘하며 4·24 재·보선에서 압승, 당을 안정궤도로 올려놓았다.

최근의 상황도 당시와 흡사하다. '강부자, 고소영' 인사 및 쇠고기 파동을 겪으며 이명박 대통령과 당의 지지율은 급전 직하했다.

이러한 위기 국면에서 당심은 결국 원외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관록과 탁월한 조정력을 택한 것이다.

검사장 출신으로 1988년 제13대 국회에서 지역구 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한 박 대표는 17대 총선까지 경남 남해·하동에서만 내리 5번 당선된 당내 최고 원로다.

한나라당의 전신인 민정당과 민자당 대변인을 역임했고, 신한국당과 한나라당 원내총무, 한나라당 부총재, 최고위원, 대표를 지내는 등 주요 당직을 두루 섭렵했다.

특히 50대 초반 4년3개월 동안의 당 대변인 시절엔 '촌철살인'의 논평과 순발력으로 '당대 최고의 명대변인'이란 찬사를 들었다.

여당(신한국당)과 야당(한나라당)에서 원내총무를 경험한 정치 감각에 그의 소신인 '대화와 타협'이 어우러져 얼어붙은 쇠고기 정국을 녹일 것이란 기대가 크다.

부인 김행자(66)씨 사이에 2녀를 두고 있다. ▲경남 남해(70) ▲서울 법대 ▲부산고검 검사장 ▲민정·민자당 대변인▲ 법무부 장관 ▲국회 법사·운영위원장 ▲신한국·한나라당 원내총무 ▲한나라당 부총재·최고위원·대표 ▲국회부의장 ▲13·14·15·16·17대 의원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정몽준, 2002년 월드컵 신화 일군 주역
허태열, 정통 행정관료… 친박계 좌장
공성진, 교수 출신… MB당선 핵심 역할
박순자, 지방선거 여성후보 30% 관철

■ 최고위원 면면

한나라당 제10차 전당대회에서 정몽준, 허태열, 공성진, 박순자 후보가 새 최고위원으로 뽑혀 박희태 대표와 함께 한나라당을 이끌어가게 됐다.

정몽준 최고위원은 고 정주영 회장의 6남으로 현대중공업 회장을 지냈으며 대한축구협회 회장을 맡아 2002년 월드컵 신화를 일궈낸 주역으로 경제와 체육에 이어 정치에 있어서도 '최고 지도자'를 꿈꾸는 6선 의원이다. 지난 2002년 대선에서 부친인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에 이어 대권을 꿈꿨지만, 민주당 노무현 후보와의 후보단일화로 꿈을 접어야 했다.

허태열 최고위원은 충북도지사를 지낸 정통 행정관료 출신으로 지난 16대 총선을 통해 정계에 입문, 부산에서만 내리 3번 당선된 중진 의원이다. 지난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박 전 대표 선대위에서 활동하며 친박(친 박근혜)계 좌장으로 입지를 굳혔다.

한양대 행정대학원 교수 출신의 공성진 최고위원은 지난 17대 서울 강남을에서 출마해 여의도에 입성한 재선의원. 17 국회에서 제1정책조정위원장과 맡는 등 활발한 활동을 벌였으며 지난 해 9월에는 초선의원으로서는 이례적으로 서울시당 위원장을 맡아 이명박 대통령 당선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박순자 최고위원은 경기도의원 출신으로 정당 생활 20년째에 최고위원에 오른 재선의원이다. 1989년 경기도 교육위원, 경기도의회 의원을 거쳐 17대 국회에서 비례대표로 등원, 2년간 중앙여성위원장을 맡았으며 2006년 지방선거에서 여성후보 30% 공천을 관철시켰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광주 수완지구 코오롱하늘채APT 단지 내 상가 입점자 모집공고-경쟁입찰

■ 건설위치 :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완택지개발지구 12-4블록 코오롱하늘채APT 단지내 상가
■ 규 모 : ① 대지면적 : 37,930㎡ / ② 건축면적 : 1,030.665㎡ / ③ 층수 : 상가 2개동(지상1~2층, 지하 1층) 16개 점포
■ 공급내역 : 상가
■ 공급규모 및 시설명도(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1호)

구분	층	호수	전용면적	공급면적	분양면적	예시가격	비고
주상가	지상 1층	101	약 [illegible]	30.000	9.171	29.372	22.000
		102	약 [illegible]	30.000	9.171	29.372	22.000
		103	약 [illegible]	30.000	9.171	29.372	22.000
		104	약 [illegible]	30.000	9.171	29.372	22.000
		105	약 [illegible]	30.000	9.171	29.372	22.000
	지상 2층	201	약 [illegible]	23.00	10.208	30.496	16.717
		202	약 [illegible]	23.00	10.208	30.496	16.717
		203	약 [illegible]	23.00	10.208	30.496	16.717
		204	약 [illegible]	23.00	10.208	30.496	16.717
		205	약 [illegible]	30.000	17.075	49.198	25.000
일반상가	지하층	101	약 [illegible]	25.600	12.800	32.000	10.437
		102	약 [illegible]	25.600	12.800	32.000	10.437
		103	약 [illegible]	25.600	12.800	32.000	10.437
		104	약 [illegible]	25.600	12.800	32.000	10.437
		105	약 [illegible]	25.600	12.800	32.000	10.437
		106	약 [illegible]	118.70	51.000	165.750	44.000
		107	약 [illegible]	54.000	30.000	94.500	20.000
		108	약 [illegible]	33.000	16.000	49.200	12.000
		109	약 [illegible]	37.817	20.405	130.275	25.000

■ 분양방법 : 경쟁입찰
■ 낙찰자 결정
■ 공급일정 및 구비서류
■ 입찰보증금 납부방법
■ 공급관련 입찰일정
■ 입찰제한일 : 2008년 12월 (구비서류 입찰일로부터 추후 통보합니다)
■ 규격사양 및 공급사항
■ 보증기관 :
■ 사업주체 지정번호
■ 분양관련 문의사항

분양문의
062.369.5200

주관 · 시행 코오롱건설